

根結과 衛氣와의 關係

이태경¹ · 김경신¹ · 강정수¹ · 김병수^{1*}

Relation of Jīn jié(根結) and Defensive Qi(衛氣)

Lee Tae Kyoung¹ · Kim Kyoung-Shin¹ · Kang Jung Soo¹ · Kim Byoung-Soo^{1*}

¹Dept. of Physiology, Colleagu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Jīn jié(根結)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a meridian pathway. If you want to study a defense qi(衛氣) and nutrient qi(營氣)'s nature, function and operation, you could find a relationship of Jīn jié(根結) and the defense qi(衛氣). We proposed that, especially, Jīn jié(根結) has got a close relationship with a operation of the defense qi(衛氣). The jié(結) of three yang(三陽) located in ears and eyes, that are a starting point of the defense qi(衛氣) operation in the daytime and a one of five sense organs(五官). Gin, Liu, Zou and Ru(根, 溜, 注, 入) of the three yang(三陽) distinguished between the three yang(三陽) in the extremities. and in the symptoms of a disease of the three yang(三陽) on the bolt - leaf - hanges(關闔樞) theory, Greater yang(太陽) is related to the skin and flesh, Yang brightness(陽明) is related to the flesh and Lesser yang(少陽) is related to the muscle or bone. These skin, flesh, muscle and bone belonged to the five bodies(五體). The five bodies(五體) have relationship with the defense qi(衛氣)'s operation and function part. The jié(結) of three yin(三陰) located in neck, chest and abdomen. If we could catched the concepts on the jié(結) of three yin(三陰) and The Gin, Liu, Zou, Ru and jié(根, 溜, 注, 入, 結) position of three yang(三陽) altogether, we could suggested the theory of the entire area completed in the surface of body. so the defense qi(衛氣)'s protecting function of the whole body surface is achieved. In the symptoms of a disease of the three yin(三陰)'s the bolt - leaf - hanges(關闔樞) theory, greater yin(太陰) and reverting yin(厥陰)'s symptoms indicates the defense qi(衛氣)'s main action of a chest and abdomen. And lesser yin(少陰)'s symptoms is about a vessle, that is not to mention on the five bodies(五體) of the three yang(三陽)'s symptoms, so here is mentioned the relationship of the defense qi(衛氣) and the five bodies(五體) strengthened. In the 『Jīn jié chapter(根結編) of Lin Shu(靈樞)』, as the meridians of the foot(足經) was described, except the meridians of the hand(手經),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the defense qi(衛氣) is relevant to the meridians of the foot(足經) than the meridians of the hand(手經).

Key Words : Jīn jié(根結), defense qi(衛氣), the bolt - leaf - hanges(關闔樞) theory,

I. 서 론

根結은 『靈樞·根結篇』과 『素問·陰陽離合論』에 언급된, 經氣가 시작되어 歸結되는 곳으로¹⁾ 四肢末端에 있는 井穴이 ‘根’이 되고 頭面·胸腹에 있는 일정한 부위는 ‘結’이 되어 四肢와 頭面·胸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kbsoo25@dju.kr
투고일 : 2013년 7월 8일 수정일 : 2013년 7월15일
게재일 : 2013년 7월19일

1) 傳統醫學研究所 編.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p291
2000.

腹의 생리기능과 穴位·主治의 관계가 설명되는²⁾ 經絡理論의 하나이다. ‘根’은 根本, 實體의 의미로서 나무에 비유하여 四肢末端이 뿌리를 의미이고, ‘結’은 終이란 의미를 가지며³⁾ 楊上善은 聚라고 하여⁴⁾ 뿌리에서 나온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보통 根結은 標本·氣街 등과 더불어 十二經脈의 분포와 氣血運行을 근거로 하여 俞穴의 上下·內外의 대응관계와 經氣活動의 기능을 밝힌 이론으로 분류되며, 馬王堆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五輸穴의 井榮輸經合, 經別理論 등과 더불어 向心性 理論으로 분류되어⁵⁾, 循環性的의 十二正經의 流注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向心性流注의 발달에서 根結은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⁶⁾, 穴位와 部位가 비교적 정확히 제시되어있어 ‘標本理論’보다도 상세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向心性流注로 분류되는 ‘五輸穴’과는 달리 임상적인 활용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根結은 標本이론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으나, 標本論이 12경 모두를 논한 것에 비해 根結은 足六經을 위주로 논하고, 標本이론에서 本은 肘膝以下를 標는 頭胸腹과 背俞穴을 論한 것에 비해 根은 四肢末端 井穴을, 結은 頭·胸·腹을 論⁷⁾하여 標本과 논점이 다르며, 標本보다 구체적이므로 보다 섬세한 이론전개가 가능하다.

『根結篇』에는 書頭에 “不知根結, 五藏六府, 折關敗樞, 開闔而走, 陰陽大失, 不可復取.”라 하였

고⁸⁾, 三陰三陽의 關闔樞와 각각의 病이 根結과 함께 기술되어 있으며, 原文의 根·溜·注·入 句節 이후에 “以營五藏之精”이라 하였다. 뒤이어 脈動으로 藏氣를 살피는 법을 놓아, 五藏六府의 정상적 활동을 위해서는 關闔樞 기능이 중요하며, 根結이 藏府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根結은 衛氣의 運行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⁹⁾, 이 구절은 藏府에서 생성된 衛氣가 陽分인 體表에서 頭面 및 胸部를 거쳐 五藏으로 順行하는 과정으로¹⁰⁾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根結篇』의 문맥상 根結은 단지 流注의 하나라기 보다, 根結과 三陰三陽, 關闔樞의 病症이 衛氣와 모종의 연관이 되는 내용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論文은 根結의 그동안의 研究를 정리해보고, 營·衛氣 중 특히 衛氣의 運行과 根結의 관계를 살펴보고, 根結과 關闔樞 病症에서 衛氣의 運行 및 作用과 관련된 五體·五官의 관련성 살펴보고 根結의 經氣가 衛氣임을 구체화하여 임상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根結에 대한 歷代 研究 動向

근결에 대한 역대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1) 向心性 流注의 하나

『黃帝內經』의 경락체계를 분석해보면, 『靈樞·經脈篇』¹¹⁾을 비롯하여 『靈樞·營衛生會』, 『禁服篇』, 『終始篇』과 같이 循環性的의 流注로 표현한 부분과 四肢

2) 傳統醫學研究所 編.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p.291, 2000.

3)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관한 研究. 慶山大學校 p.75, 2003.

4)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上卷. 醫聖堂, p.158, 2002.

5) 田合祿 著. 中醫太極三部六經體系 鍼灸眞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pp.248-254, 2011.

崔元俊. 향심성 노선의 경락체계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1998.

6) 孫光洛. 經脈體系の 形成과 發展에 관한 文獻的 研究. 東國大學校, pp.41-42, 1998.

7) 조영욱 외. 표본 근결 기가의 정의와 침구치료적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의학회지, 22(1):203-210, 2005.

8) 編譯者 金達鎬.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146, 2002.

9) 姜棟允, 趙學俊. 經脈 絡脈의 順行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2):33-34, 2006.

10) 姜棟允, 趙學俊. 經脈 絡脈의 順行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2):33-34, 2006.

11)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289, 2002.

末端에서 體幹을 잇는 직선 경로로 설명된 편들이 섞여 있다. 內經時代 以前の 馬王堆醫書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의 流注에는 肩脈과 足太陰脈을 제외하고 모두 四肢末端인 手足, 腕踝關節 部位에서 頭面 혹은, 體幹部로 向하고 있어¹²⁾ 內經의 向心性 流注의 내용이 이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제시하고 있다. 內經에는 『靈樞·九鍼十二原』이 “五藏有六府 六府有十二原 十二原出於四關”이라 하여 原穴의 의미를 밝히는 데 이는 經氣가 原穴로 發出하는 기전을 나타낸 경맥이론의 근원이 되는 編章으로¹³⁾ 向심성의 유주의 시초가 되고, 『靈樞·本輸篇』에는 五輸穴이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出·流·注·行·入의 순서로 體幹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며¹⁴⁾, 『靈樞·衛氣篇』에는 標本理論에서 四肢를 本으로 體幹을 標로 보고 있고¹⁵⁾, 『靈樞·經別篇』의 經別도 四肢에서 體幹으로 流注하는 모습을 보이며¹⁶⁾, 『靈樞·經筋篇』의 十二經筋의 走行도 四肢에서 起하여¹⁷⁾, 根結과 더불어 이들 모두는 向心性 理論으로 간주된다. 向심성 이론체계에서는 『九鍼十二原』의 原氣개념에서 시작하여 『靈樞·衛氣』의 標本이론으로 발전하고, 다시 根結理論을 거쳐, 根結과 井穴의 穴名과 部位가 일치하면서도 升降出入의 개념이 존재하는 『本輸篇』의 五輸穴理論으로 이행한다¹⁸⁾ 주장이 있으며, 또한 根結은 向心經脈의 최초의 형식이자¹⁹⁾ 向심성 이론의 萌芽로²⁰⁾ 바라보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根結은

向심성 이론의 중요이론임은 분명하다.

2) 根結의 流注는 직선의 경락체계에서 순환성 경락체계로 발전되는 과정

경맥의 체계가 十一脈灸經의 單純, 疏略하고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古拙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체계가 완비되는 추세로 진행되어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足臂에서 陰陽으로 그리고 經脈으로 이어지는 三段階의 발전이 있었다²¹⁾고 보며, 특히 『中國鍼灸學學術史大綱』은 경락발전 과정을 직선 체계에서 순환적 체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고증하는 방식의 鍼灸學史를 서술하고 있다²²⁾. 여기에서 根結은 足臂·陰陽에서 內經時代의 本輸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의미를 갖는다.

3) 根結에서 ‘根’과 ‘結’의 의미에 관하여 논한 내용

根과 結의 역대 주가의 설명을 보면, 楊上善은 根은 本이요 結은 繫라 하여 根結이 藏府의 要임을 알아야 한다 하였고²³⁾, 張志聰은 根은 ‘經氣相合而始生’이요 結은 ‘經氣相將而歸結’이며 根結은 ‘六氣合六經之標本’이라 하였으며²⁴⁾, 馬蒔는 脈氣가 일어나는 바가 根이요, 돌아가는 바가 結이라 하였고²⁵⁾, 張介賓은 아래에 있는 것이 根, 위에 있는 것이 結이라 하였고²⁶⁾, 任應秋는 四肢는 下部에 위치하여 根이 되고 經氣의 源이 되며, 頭身은 上部에 위치하여 結이 되어 經氣의 流가 된다고 하였다²⁷⁾. 竇漢卿은 四根三結이라

12) 崔元俊. 向심성 노선의 경락체계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p.28, 1998.

13) 孫光洛. 經脈體系の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p.41, 1998.

14)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49, 2002.

15)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973, 2002.

16)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389, 2002.

17)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421, 2002.

18) 田合祿 著. 中醫太極三部六經體系 鍼灸真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pp.249-250, 2011.

19) 孫光洛. 經脈體系の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pp.41-42, 1998.

20) 孫光洛. 經脈體系の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p.130, 1998.

2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87, 1992.

徐自漢 等著. 內經靈素考.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pp.19-20, 1992.

22) 黃龍祥 著. 中國鍼灸學學術史大綱. 法仁文化社, p.356, pp.243-631, 2007.

2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人民衛生出版社, pp.160-164, 1983.

24)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p.165-166, 2002.

25) 馬元台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聯國風出版社, pp.39-14, 1977.

26) 張介賓. 類經. 書苑堂, pp.176-178, 1977.

하여 手足六經의 根이 四肢末端이므로 四根이라고 하고, 結이 頸·胸·腹의 三部位로 三結이라 칭하였다²⁸⁾. 中國의 陸瘦燕²⁹⁾은 根結을 原穴과 結簿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靈樞·九鍼十二原』의 原穴이 있는 四關이 根穴이 있는 말단부 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⁰⁾.

4) 根結의 經氣에 대한 언급

根結의 經氣에 대하여, 慄疾滑利한 성질을 가지며, 順行이 일정치 않고, 陽分에서 陰分으로 들어가는 順行 특성을 갖는 衛氣가 根結의 經氣의 主體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³¹⁾. 根結의 經氣는 四肢末端의 陽分으로 出·溜·注하여 陽分인 頭部와 胸部로 順行하다가, 陽分인 頭頸部를 통해 다시 陰分인 五藏으로 들어오므로³²⁾, 이러한 모습에서 衛氣의 특징과 결부하여 그 主體를 衛氣로 본 것이다. 특히 『靈樞·衛氣行』의 衛氣가 눈과 귀에서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어 根結을 기존의 向心性 流注의 하나로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갖는다. 그러나 根結에서 足經만을 언급하고 手經을 언급하지 않은 점과 根結 내용 뒤에 根·溜·注·入은 六陽經만 언급한 내용은 아직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그 외에 根은 井穴로 結은 體幹부위로 標本과 유사성에 대하여 논한 연구가 있으며³³⁾, 十一脈灸經의 유주와 비교한 연구³⁴⁾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根結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 왔으며, 특히, 根結의 經氣가 衛氣임은 밝혀놓았으나 衛氣와 根結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미약한 실정이다.

2. 영위기와 근결과의 관계

氣는 인체 生命活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³⁵⁾, 실제 인체 藏府肌肉筋骨을 營養濡潤 및 保護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氣는 營氣와 衛氣에 해당한다.

營氣와 衛氣는 모두 收穀에서 化生되고 脾胃에서 근원하지만, 營氣는 中焦로 나아가 經脈을 통해 운행되는 精氣로, 四肢를 영양하며 안으로 五藏六府를 관개한다고 하여³⁶⁾, 作用이 運營과 營養임을 알 수 있고, 衛氣는 陽氣에 속하여 上焦로 나가 脈의 외부를 운행하며, 그 성질이 매우 강하여 經脈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氣의 운행이 신속하고 매끄러운데³⁷⁾, 『靈樞·邪客篇』에서는 음식물의 떠오르면서 왕성한 기운 가운데 날쌔면서 맹렬한 것에서 나와 먼저 四肢 分肉 皮膚 사이 등을 순행하면서 쉬지 않는다고 하여³⁸⁾, 護衛, 防禦의 작용이 主作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衛氣가 内部의 藏府보다 바깥의 五體에 관련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여 준다.

營氣와 衛氣는 營은 脈中에 있고 衛는 脈外에 있어 晝 50번을 돌아 大會하고 衛氣는 陰分을 25度, 陽分을 25度 晝夜로 구분하여³⁹⁾ 運行한다. 衛氣는 낮에는 陽分에서 순행하다 밤에는 陰分에서 순행하되 항상 足少陰의 分間에서 五藏六府로 행한다⁴⁰⁾. 營氣의 運行은 『靈樞·經

27) 任應秋. 黃帝內經類析. 內蒙古人民出版社, p.115, 1986.

28)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pp.64-70, 1984.

29) 陸瘦燕 (1909-1969年)은 江蘇崑山縣사람으로 鍼灸正宗, 經絡學圖說, 俞穴學概論, 刺灸法滙論, 鍼灸俞穴圖譜 등을 저작함.

30) 吳紹德等. 陸瘦燕鍼灸論著醫案選. 人民衛生出版社, pp.18-51, 1984.

31) 姜棟允 趙學俊. 經脈 絡脈의 順行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 大韓한의학회지, 19(2):33-34, 2006.

32) 姜棟允, 趙學俊. 經脈 絡脈의 順行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 大韓한의학회지, 19(2):34, 2006.

33) 孫光洛.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p.43, 1998.

34) 谷世. 根結標本理論과 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7卷2期, 1994.

34) 朴映奂. 是動病 所生病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p.48, 2012.

35) 東醫生理學. 慶熙大學校出版局. p.87, 1993.

36)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1206, 2002.

『靈樞·邪客篇』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37) 編者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p.1691, 2000.

38)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1206, 2002.

39)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500, 2002.

40)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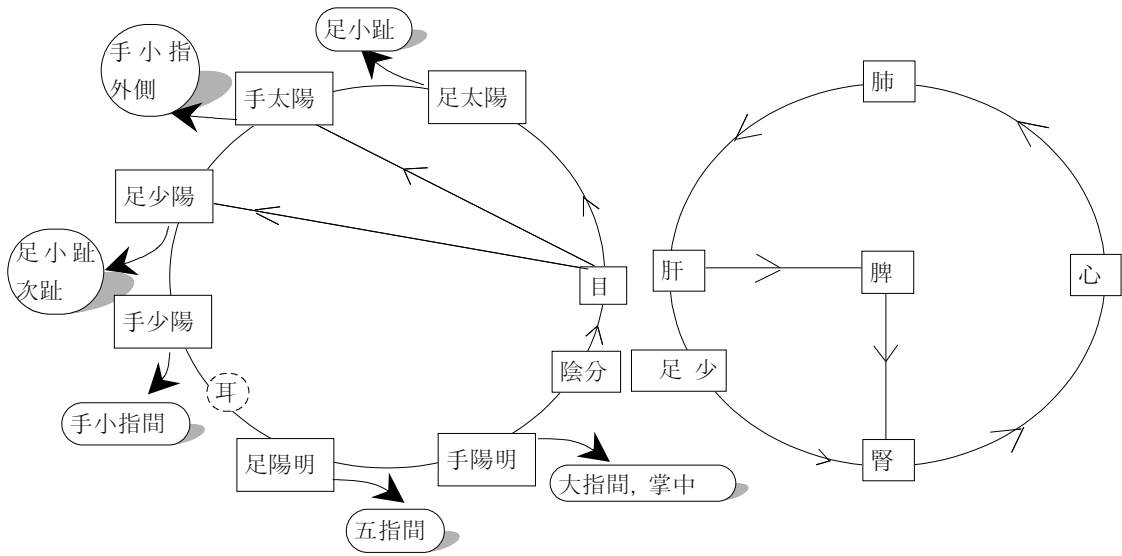


그림 1. 衛氣 運行 圖式

脈篇』의 유주와도 비슷하여, 『類經』의 「營衛三焦」에는 “營氣之行 周流不休 凡一晝一夜五十周於身而復爲大會 其十二經脈之次 則一陰一陽一表一裏 送行相貫 終而復始 故曰如環無端也⁴¹⁾”라 하였고, 「營氣運行之次」에는 “營氣運行之次 卽前十二經脈之序也⁴²⁾”라 하여 營氣의 運行이 바로 十二經脈의 유주임을 알 수 있다. 營氣는 經脈을 따라 돌며 四肢末端에서 五藏六府까지 작용하고, 衛氣는 經脈 바깥으로 또는 바로 四肢分肉之間으로 흐름을 알 수 있다⁴³⁾.

이렇게 營衛를 비교하면 根結의 循行 特徵이 十二經脈을 따라 運行하는 營氣보다 衛氣와 관련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衛氣의 運行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관성을 볼 수 있다. 衛氣는 晝夜의 운행 경로가 다르며, 營氣와 함께 運行하는 모습도 있고, 營氣와 별도로 運行하는 모습도

있다. 衛氣運行은 『靈樞·衛氣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⁴⁴⁾, 낮에는 눈에서 시작하여 足太陽 → 手太陽 → 足少陽 → 手少陽 → 足陽明 → 手陽明 순으로 퍼져 四肢末端에 닿으며, 밤에 이른 후 足心에서 陰分으로 들어간 후 다시 눈으로 가서 一周를 한다고 하였다. 밤에는 陰分으로 들어가는 데, 足少陰에서 腎으로 들어가 腎 → 心 → 肺 → 肝 → 脾의 순서로 藏府에서는 相克順으로 運行하여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이 정리된다. 衛

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衛氣者，出其悍氣之慄疾，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晝日行於陽，夜行於陰，常從足少陰之分間，行於五藏六府。

41)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p.193, 1982.
 42)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p.197, 1982.
 43) 衛氣는 營氣와 함께 50營하는 運行과 하늘의 28宿에 맞춰 흐르는 運行이 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營氣와 衛氣와의 구별에 초점을 맞추므로 다른 運行은 논외로 하겠다.

44)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p.1316-1332, 2002.
 衛氣之行，一日一夜五十周於身，晝日行於陽二十五周，夜行於陰二十五周，周於五藏。是故平旦陰盡，陽氣出於目，目張則氣上行於頭，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指之端。其散者，別於目銳眦，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其散者，別於目銳眦，下足少陽，注小指次指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別者，以上至耳前，合於頰脈，注足陽明；以下行至跗上，入五指之間。其散者，從耳下下手陽明，入大指之間，入掌中。其至於足也，入足心，出內踝下，行陰分，復合於目，故爲一周。……陽盡於陰，陰受氣矣，其始入於陰，當從足少陰注於腎，腎注於心，心注於肺，肺注於肝，肝注於脾，脾復注于腎爲周。是故夜行一舍，人氣行於陰藏一周與十分藏之八，亦如陽行之二十五周，而復合於目。陰陽一日一夜，合有奇分十分身之二，與十分藏之二。是故入之所以臥起之時有早晏者，奇分不盡故也。……是故日行一舍，人氣行三陽與陰分，常如是無已，天與地同紀，紛紛白白分分，終而復始，一日一夜水下百刻而盡矣。

氣의 晝間一周 原文을 자세히 보면, 피져가는 것은 크게 太陽, 少陽, 陽明 順이나, 각 경락별로 살펴보면, 手少陽을 제외하고 太陽과 少陽은 눈(目)에서 발원하여 나아가며, 足陽明은 귀(耳) 앞에서 나아가며 手陽明은 귀 아래에서 뺀어 나간다. 크게 보면 太陽과 少陽의 起始는 눈과 관련성이 높으며, 陽明의 起始는 귀와 관련성이 높아서 결론적으로 衛氣가 五官인 눈과 귀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衛氣의 作用이 五官에도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末端에서는 足太陽은 “小指”, 手太陽은 “手小指之間外側”, 足少陽은 “小指次指之間”, 手少陽은 “小指之間”으로 十二經脈流注의 指端과 같고, 足陽明은 五指之間, 手陽明은 大指之間과 掌中으로 流注의 指端과 달라 부위로서의 손과 발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⁴⁵⁾.

根結에서 根부위는 四肢末端으로 衛氣가 포산된 指端과 같으며, 結부위는 頭·胸·腹부위인데, 특히 三陽의 結은 命門, 鉗耳, 窗籠으로 모두 衛氣布散의 시작부위와 흡사하다. 이러한 부위적인 일치점은 방향성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노선으로 보이며, 根結의 經氣는 衛氣 運行을 살펴보면 衛氣로 추정된다. 즉 눈과 귀에서 출발한 위기가 수족말단에 모여서 뿌리가 되고, 수족말단을 근거로 다시 頭胸腹에 맞히는 것이 衛氣가 발현된 것으로 인식된다.

3. 根結의 三陰三陽은 ‘유주’가 아닌 ‘부위’로 理解

『根結編』에 나오는 ‘三陰三陽’은 선 개념의 經絡으로 주로 이해되나⁴⁶⁾, 三陰三陽은 경우에 따라 선 개념의 經絡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공간적인 부위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衛氣와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三陰三陽의 공간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素問·陰陽離合論』과 『根結編』은 三陰三陽과 關闔樞에 대한 동일 문구가

나온다⁴⁷⁾. 三陰三陽의 위치는 聖人이 南面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앞을 廣明 뒤를 太衝으로 놓고, 太衝의 바닥이 少陰이고 少陰의 위가 太陽이며, 中身の 위가 廣明이고 廣明의 아래가 太陰이고 이 앞쪽이 陽明이며, 厥陰은 少陰과 太陰의 사이에 있는데 厥陰의 表가 少陽이 된다⁴⁸⁾. 이는 上下 前後 左右로 六合을 이루는데, 이 때 左右는 方向이 아니라 兩側面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⁹⁾. 대부분의 注家들은 이를 經絡이나 藏府로 설명하였으나, 河根浩는 인체에서 구조적으로 陰在內 陽在外的 원리로 三陽은 外部를 담당하므로 太陽은 後面(背)이 되고, 陽明은 前面(腹)이 되고, 少陽은 側面(脇)이 되며, 三陰은 인체 內部の 前·中·後의 時間的 推移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⁵⁰⁾. 이러한 三陰三陽의 離合의 부위들은 인체의 部位的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素問·陰陽離合論』의 關闔樞는 經絡의 流注보다 인체를 부위로 해석하는 三陰三陽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며, 關闔樞의 기능뿐만 아니라 病症까지 밝힌 「根結編」에서 언급된 ‘三陰三陽’은 굳이 선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아도 되므로⁵¹⁾ 部位적인 측면에서 풀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위적인 三陰三陽은 皮部에서도 나뉘는데, 『素問·皮部論』에 太陽은 關樞, 陽明은 害蜚(闔扉), 少陽은 樞持(樞軸)라 하였고, 太陰은 關蟄,

47) ……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

48)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陽根起於至陰, 結於命門, 名曰陰中之陽.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陽明根起於厥兌, 名曰陰中之陽. 厥陰之表, 名曰少陽, 少陽根起於厥陰, 名曰陰中之少陽. 是故三陽之離合也, ……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中爲陰, 其衝在下, 名曰太陰, 太陰根起於隱白, 名曰陰中之陰. 太陰之後, 名曰少陰, 少陰根起於涌泉, 名曰陰中之少陰. 少陰之前, 名曰厥陰, 厥陰根起於大敦, 陰之絕陽, 名曰陰之絕陰. 是故三陰之離合也

49)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關한 研究. 慶山大學校 p.74, 2003.

50)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關한 研究. 慶山大學校 p.74, 2003.

51) 玉到勳 著, 『素問·陰陽離合論』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p.48, 1989.

45) 이는 陽明의 속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46) 玉到勳 著. 『素問·陰陽離合論』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p.47, 1989.

少陰은 樞儒, 心主(厥陰)은 害肩이라 하였다⁵²⁾. ‘害’에 관하여 『素問識』에서는 “蓋害盍闔 古通用”이라 하였으므로⁵³⁾ 害를 闔으로 보면, 『皮部論』의 名稱에서 太陽·太陰은 關으로 陽明·厥陰은 闔으로 少陽·少陰은 樞로 三陰三陽의 關闔樞와 연관성을 갖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피부와의 关联性까지 종합하면, 三陰三陽은 비단 經絡 혹은 藏府 뿐만 아니라 인체 各 部分의 皮膚에 이르기까지 氣의 흐름을 구분 짓는 커다란 줄기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⁵⁴⁾. 그러므로 ‘根結編’의 ‘三陰三陽’은 선(line)이 아닌 部位(sector)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根結의 ‘根’과 ‘結’사이의 인체 체표부위가 縱的으로 三陰三陽이라는 부위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4. 三陽의 根結과 衛氣와의 관계

『營樞·衛氣行』에는 낮에 手足三陽經을 돌고, 밤에 五藏을 돈다고 하였다⁵⁵⁾. 그러므로 衛氣行에서 말하는 陰分은 五藏이 되며 陽分은 五藏과 대비되는 手足三陽經으로 體表 또는 五體, 五官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三陽의 結과 五官

인체에서 衛氣는 주로 四肢分肉, 곧 五體와 五官을 중심으로 防禦와 護衛의 기능을 수행한다. 衛氣가 주로 體表에서 作用을 하므로 衛氣의 運行과 관련된 根結도 體表의 五官 五體와의 关联性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陽分인 手足三陽이 더 깊은 关联性을 갖는다. 五官에서는 根結에서 三陽의 結이 关联性을 갖는다. 太陽의 結은 命門인 眼, 陽明의 結은 鉗耳로 耳, 少陽의 結은 窗籠으로 귓속을 지칭하였다. 五官 中 이들만 기록된 이유는 衛氣와의 关联性 때문으로 보이는

데, 衛氣는 晝夜의 運行이 陽分과 陰分으로 나뉘므로 晝夜의 구분과 밀접한 五官만 언급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晝夜의 구분은 해의 움직임으로 구별되어 六氣的으로 寒熱, 五行的으로 水火로 대비될 수 있는데, 類經에 少陰은 君火로 離卦의 象(☲)이고, 太陽은 寒水로 坎卦의 象(☵)이라 하였고⁵⁶⁾, 周易의 『設卦傳』에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股 坎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⁵⁷⁾”이라 하여 八卦의 인체 배속을 설명하였는데, 坎卦는 耳(耳)로 離卦는 眼(目)에 배속됨을 알 수 있으므로, 少陰과 太陽은 각각 人체에서 眼과 耳로 배속되어, 眼과 耳가 人체에서 水火의 대표가 됨을 알 수 있는 바, 晝夜에 運行에 차이가 있는 衛氣가 眼과 耳를 시발점으로 삼고, 根結에서 結이 眼과 耳가 됨은 합당한 이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陽의 結은 衛氣의 運行과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衛氣의 五官에서의 作用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2) 三陽의 關闔樞 病症과 衛氣와의 關係

『靈樞·根結編』에는 三陰三陽의 關闔樞의 내용이 그 病理가 根結과 根·溜·注·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病症에서 根結과 衛氣와의 關係를 볼 수 있다. 楊上善은 關闔樞를 門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三陰三陽을 陰陽으로 나누어 三陽을 外門으로 三陰을 內門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각각을 자세히 서술하였는데⁵⁸⁾⁵⁹⁾, 三陽이

52)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下卷. 醫聖堂, pp.112-118, 2001.

53) 丹波元簡 著.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p.305, 1984.

54)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p.35, 1996.

55) 金善호 역. 선호 영추(상). 대전, 주민출판사, pp.232-233, 2003.

56)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p.613, 1982.

57) 金석진. 대산 주역강의(3). 대전, 한길사, p.361, 1999. 그러나 마의선생 역경에서는 巽을 手에, 艮을 鼻에 배속하고 있다.

58)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60, 中華民國 75.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

59)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p.60-61, 中華民國 75.

夫爲門者 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太陽脈主禁津液及於毛孔 故爲關也.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關閉也. 胃足陽明脈令眞氣止息 復無留滯 故名爲闔也. 三者門樞 主轉動者也. 膽足少陽脈主筋 綱維諸骨 令其轉動 故爲樞也. 內門亦有三者 一者門關 主禁者也. 脾藏足太陰脈 主禁水穀之氣 輸納於中不失 故爲關也. 二者門闔 主開閉者也. 肝藏足厥陰脈主守神 氣出入通塞悲樂 故爲闔也. 三者門樞 主動轉也. 腎藏足少陰脈主行津液 通諸

몸 바깥 형체를 주관하여, 음식물의 정미가 운화를 거쳐 허파 중의 대기와 합하여 宗氣가 되고 이것이 眞氣가 되어 형체가 滋養되는 것으로 보았고, 三陰은 몸 내부에서 음식물의 五味가 脾의 運化를 통하여 형성된 津液과 神에서의 감정을 조절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고로 關閤樞는 藏府의 빗장과 문짝과 지도리의 역할로 三陽은 眞氣와 형체를, 三陰은 津液과 감정을 각각 주관하므로⁶⁰⁾ 三陽은 體表인 五體에 보다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靈樞·根結編』에는 정상적 關閤樞 작용이 깨진 증상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먼저 太陽關의 病症은 ‘內節瀆而暴病起’라 하였고, 瀆은 ‘皮肉宛腫而弱’이라 하였다. 楊上善은 太陽은 骨氣를 주관하여 빗장의 역할을 하니, 骨氣⁶¹⁾가 꺾이면 肉의 마디가 안에서 망가지서 暴病이 된다고 하였고⁶²⁾, 張介賓은 太陽이 表에 있어서 氣가 肌肉에 있으니 사기가 쉽게 들어와 暴病이 많다고 하면서 瀆에 대하여 消瘦乾枯하여지는 것이라 하였으며⁶³⁾, 丹波元簡은 肉節瀆을 瀆을 慳으로 肉이 滿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⁶⁴⁾, 『靈素節注類編』에는 陽氣가 外衛를 얻지 못해 腠理가 固密하지 못해져서 暴病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⁶⁵⁾, 田合祿은 원문의 ‘皮肉’을 腠理라 규정짓고, 腠理에서 衛外기능을 잃으면 外邪가 人體의 表에 侵入하기 쉬우니 急暴疾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⁶⁶⁾, 表를 主하는 太陽關의 기능이 망가지면

腠理와 肌肉의 病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病變의 部位는 五體에서 皮肉에 해당한다.

陽明關의 病症은 ‘氣無所止息而痿疾起’라 하였고, ‘無所止息者, 眞氣稽留, 邪氣居之也.’라 하였다. 楊上善은 陽明은 肉을 主하고 氣를 主하므로 肉과 氣가 망가지면 正氣가 능히 조절하는 작용을 못하여 몸이 시들고 거두지 못한다 하고 眞氣의 要는 능히 기운을 그쳐 洩하지 않고 능히 기운을 行해 몸을 기르는 것이라 하였고⁶⁷⁾, 張介賓은 陽明은 宗筋을 運轉하게 함을 주하여 骨을 結속하면서 大關節을 원활하게 하기에 痿疾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眞氣稽留’에 대하여 衛氣가 行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으며⁶⁸⁾, 田合祿은 『素問·痿論編』의 “治痿者, 獨取陽明”과 “陽明者, 五藏六府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 故陽明虛則宗筋縱, ……” 등을 인용하여 宗筋과의 관계로 풀이하면서 眞氣를 肺金의 正氣가 邪氣에 의해 運行이 停止된 상태로 보았으므로⁶⁹⁾, 陽明은 五體에서 肉 혹은 宗筋을 주관함을 알 수 있고, 眞氣는 운행하는 正氣로 張介賓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衛氣임을 알 수 있다.

少陽樞의 病症은 ‘骨繇而不安於地’이라 하고 ‘骨繇者, 節緩而不收也…… 所謂骨繇者, 搖故也’라고 하였다. 楊上善은 少陽은 筋을 主하여 骨節을 움직이는데, 뼈마디의 기운이 늘어져 움직이지 못하므로 뼈가 흔들리고, 뼈가 흔들리면 少陽의 지도리 역할이 망가진다고 하였고⁷⁰⁾, 張介賓은 氣가 筋骨 사이에 있고, 골이 흔들리는 것은 骨節이 이완되어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니, 땅에서 요동하여 불안한 것이라고 하였고⁷¹⁾, 黃元

經脈 故爲樞者也.

60)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연구. 慶熙 大學校, p.38, 1996.

61) 이 骨氣에 대하여 津液, 구체적으로 精이라는 주장이 있다.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연구. 慶熙 大學校, p.35, 1996.

62)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p.161-162, 中華民國 75.

63)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闢病刺』下同皆屬太陽 爲陽中之表 故氣在肌肉 爲肉節瀆也 表主在外 邪易入之 故多新暴病也. …… 所謂瀆者 其皮肉宛腫而弱 卽消瘦乾枯之謂.

64) 『靈樞識』簡案 瀆 慳也 …… 腫 肉不滿也

65) 『靈素節注遺編·營衛經絡總論·三陽經開闢樞折』折者 陽氣不得外衛 而腠理不固 外邪乘虛襲之則暴病起.

66) 田合祿 著. 中醫太極三部六經體系 鍼灸真原. 山西科

學技術出版社, pp.255-256, 2011.

67)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p.161-162, 中華民國 75.

68)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闢病刺』陽明 主潤宗筋 束骨而利機關 故爲痿疾. …… 眞氣稽留 謂衛氣不行也.

69) 田合祿 著. 中醫太極三部六經體系 鍼灸真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p.259, 2011.

70)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162, 中華民國 75.

71)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闢病刺』其氣在筋骨間. 骨繇者

표 1. 三陰三陽의 根結과 折候

關闔樞	三陰三陽	根	結	折候
關	太陽	至陰	命門(目)	內節瀆而暴病起.
樞	少陽	竅陰	耳中	骨繇而不安於地
闔	陽明	厲兌	鉗耳	氣無所止息而痿疾起.
關	太陰	隱白	太倉	倉廩無所輸膈洞
樞	少陰	涌泉	廉泉	脈有所結而不通
闔	厥陰	大敦	玉英	氣絕而喜悲

표 2. 三陽의 根·溜·注·入과 結부위

六陽經	根	溜	注	入	結
足太陽	至陰(井穴)	京骨(原穴)	崑崙(經穴)	天柱·飛揚(絡穴)	命門(눈)
足陽明	厲兌(井穴)	衝陽(原穴)	足三里(合穴)	人迎·豐隆(絡穴)	鉗耳(귀)
足少陽	竅陰(井穴)	丘墟(原穴)	陽輔(經穴)	天容·光明(絡穴)	窗籠(귀)
手太陽	少澤(井穴)	陽谷(原穴)	少海(合穴)	天窗·支正(絡穴)	
手陽明	關衝(井穴)	合谷(原穴)	陽谷(經穴)	天突·扁歷(絡穴)	
手少陽	商陽(井穴)	陽池(原穴)	支溝(經穴)	天膈·外關(絡穴)	

御는 筋膜이 거칠고 느슨해져서 관절이 이완되어 거두질 못하여 골이 튼튼하지 못하니 骨繇는 골절이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⁷²⁾, 少陽이 筋이나 筋膜에 관계하여 關節에서 뼈를 움직여주지 못해서 안정이 되지 않아 흔들리는 병증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少陽은 五體에서 筋이나 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三陽의 關闔樞에서 太陽은 腠理·肌肉, 陽明은 肉이나 宗筋과 眞氣, 少陽은 筋이나 筋膜으로⁷³⁾ 모두 藏府 바깥의 五體를 언급하여, 根結에서 三陽의 關闔樞 病症이 衛氣의 主作用 부위임을 알 수 있다.

3) 根·溜·注·入이 六陽經만 있는 이유

한 가지 더 언급할 부분이 『根結編』의 根·溜·注·入이 왜 三陽만 언급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문단 말미에 “此所謂十二經者”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原篇에는 十二經이 있

었으나 現行本에는 三陰이 빠져, 이것이 缺失된 것인지 아니면 陽經만 언급하고 陰經은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⁷⁴⁾ 견해가 있다. 根結의 구조상 手足은 根부위인 四肢末端의 井穴에서 結부위인 頭胸腹으로 가는 중간에 있다. 三陽의 關闔樞 病症은 太陽은 皮肉, 陽明은 肉, 少陽은 筋骨의 五體인데, 手足에는 藏府는 없고 五體만 존재하므로, 衛氣의 특성상 三陰과 관련성이 적기에 三陽이 所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體幹에서는 結하는 부위로 頭·胸·腹에서 三陰三陽을 구분 지을 수 있으나, 手足은 結부위가 아니므로 구분 짓는 다른 기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根·溜·注·入이라는 노선으로 手足에서 三陽間의 橫的 區劃을 나누어, 體表面를 구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만 病症의 部位를 진단 할 수 있으므로 三陽만이 根·溜·注·入을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三陰은 少陰을 제외하고 結하는 부위가 바로 關闔樞의 病症이 나타나는 곳으로 五體와의 관련성이 적어서 根·溜·注·入이 필요 없으리라 사료된다.

5. 三陰의 根結에 대한 이해

骨節縱緩不收 搖動不安於地也.
 72) 『靈樞懸解·根結 二十六』以肝主筋 而諸筋皆聚於筋 肝膽同氣 筋膜鬆懈 則節緩而不收 故骨繇而不健 所謂骨繇者 骨節動不堅故也.
 73) 黃元御는 『靈樞懸解·根結 二十六』에 ‘太陽之病 在皮毛 陽明之病 在肌肉 少陽之病 在筋膜 各有其部也.’라고 하였다.

74) 孫光洛.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文獻的 研究. 東國大學校, p.41, 1998.

1) 三陰의 結과 衛氣와의 관계

三陰에서는 太陰은 太倉, 少陰은 廉泉에서 結하고, 厥陰은 玉英에서 結하며 膻中에서 絡한다. 太倉에 대하여, 楊上善은 中脘管穴로⁷⁵⁾, 張介賓은 任脈의 中脘穴⁷⁶⁾이라 하였다. 廉泉에 대하여, 楊上善은 結喉上 廉泉으로⁷⁷⁾, 張介賓은 任脈의 穴인 廉泉으로⁷⁸⁾, 丹波元簡은 舌下の 穴이라 하였고⁷⁹⁾, 玉英에 대하여, 楊上善은 玉英과 膻中으로 함께 結하는 것으로 보았고⁸⁰⁾, 張介賓은 任脈의 玉堂穴로⁸¹⁾ 보았다. 이렇듯 太倉은 中脘穴, 廉泉은 廉泉穴, 玉英·膻中은 玉堂穴·膻中穴 등으로 주로 穴名으로 풀이하였으나, 三陰三陽이 ‘부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太倉은 큰 倉庫라는 뜻인데, 이에 관하여 內經에서는 『靈樞·脹論』에 “胃者 太倉也”⁸²⁾라 하였고, 『素問·靈蘭秘典論』에는 脾胃가 倉廩之官⁸³⁾이라 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는 脾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이 倉廩의 근본으로營이居하여 이름하여 그릇이라 하였고⁸⁴⁾,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咽, 胃, 大腸, 小腸, 膀胱 등의 竅가 모두 胃에 속한다고 하였다⁸⁵⁾. 胃가 음식을 받아들이어 腐熟水穀하므로 藏府의 大倉이 되며, 胃를 중심으로 脾·大腸·小腸·三焦·膀胱이 모두 倉廩의 본이 되니, 太倉이란 좁게는 胃를 뜻하고, 넓게는 脾와 大·小腸 및 膀胱 三焦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해부학적으로

로 腹部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廉泉은 『靈樞·脹論』에 “廉泉玉英者, 津液之道也”라 하였고⁸⁶⁾, 『素問·刺瘡論』에 “舌下兩脈者, 廉泉也.”라⁸⁷⁾ 하여 舌下부위와 침샘분비와 관련성이 있다. 舌下에 대하여, 『靈樞·口問篇』에서는 胃가 緩해지면 廉泉이 열려서 침이 나온다고 하였는데⁸⁸⁾,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廉泉이 舌下の 구멍으로 涎道로 통한다고 하였고⁸⁹⁾, 『靈素節注類編』에는 津이 舌下の 廉泉에서 넘쳐 입 밖으로 流溢한다고 하여⁹⁰⁾, 廉泉이 舌下の 涎이 나오는 곳과 밀접한 곳으로 설명하였으며, 『靈樞·經脈篇』에 腎足少陰之脈의 유주가 喉嚨을 따라 舌本을 끼고 올라가므로⁹¹⁾, 舌下부위가 足少陰의 部位여서 廉泉은 舌下부위의 舌本 兩側의 脈이 있는 곳이며, 涎道와 통하는 것으로 보아 넓게는 顎下腺과 舌下腺을 포괄하는 前頸·舌下·咽喉 부위로 볼 수 있다.

玉英은 본래 『史記·孝文本紀』등에서 玉之精英을 뜻하였으며, 인체에서는 『黃庭內景經·脾長章』에 “含漱金醴吞玉英”이라 하고, 務成子注에 “金醴, 玉英 口中之津液”이라 하여 입안의 침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靈樞·脹論』에 “廉泉玉英者, 津液之道也”라 하였는데⁹²⁾, 楊上善은 玉英이 溲便之路가 된다고 하였고⁹³⁾, 張志聰은 下焦의 津液이 任脈을 따라 올라와 廉泉과 玉英에서 나와 上竅를 濡潤한다고 하였으며⁹⁴⁾, 黃元御는 廉泉

75) 『黃帝內經太素·卷十·經脈根結』太倉 在中脘管穴 與標本不同.

76)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闔病刺』太倉 卽中脘 任脈穴也

77) 『黃帝內經太素·卷十·經脈根結』上行至結喉 上廉泉

78)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闔病刺』上者 結於廉泉 任脈穴也

79) 『靈樞識』簡案 諸家謂任脈經穴 非也. 氣府論 足少陰舌下各一 王注 舌本左右二穴也 刺虐論 舌下兩脈者 廉泉也 并謂腎經穴.

80) 『黃帝內經太素·卷十·經脈根結』行之玉英 膻中爲結

81)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闔病刺』玉英 卽玉堂 任脈穴也

82)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748, 2002.

83)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上卷. 醫聖堂, p.192, 2001.

84)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上卷. 醫聖堂, p.226, 2001.

85) 『黃帝內經太素·卷二十九·脹論』咽胃大腸小腸膀胱等竅皆屬於胃

86)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748, 2002.

87)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上卷. 醫聖堂, p.788, 2001.

88)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681, 2002.

89) 『黃帝內經太素·卷二十七·十二邪』廉泉 舌下孔 通涎道也

90) 『靈素節注遺編·外感內傷總論·涎下』涎爲脾之液 脾虛胃熱而津泛 出于舌下之廉泉 而流溢口外 由于蟲動故也.

91)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下卷. 醫聖堂, p.170, 2001.

92)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748, 2002.

93) 『黃帝內經太素·卷二十七·十二邪』玉英 復爲溲便之路 故名津液道也

94)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750, 2002.

과 玉英이 任脈의 穴로 咽喉의 바깥을 지나니 이것이 진액의 도로라고 하여⁹⁵⁾, 玉英이 津液의 흐름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絡하는 膻中’은 크게 心包絡과 氣海의 두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素問·靈蘭秘典論』에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⁹⁶⁾”이라 하고, 『素問·刺法論』에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可刺心包絡所流.⁹⁷⁾”라 하였으며, 黃元御는 膻中은 곧 心主로 心之包絡을 의미하여 心包絡이 되고 心君을 護衛하므로 臣使之官이 된다 하여⁹⁸⁾ 膻中이 心包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靈樞·海論編』에는 膻中을 氣海라 하였는데, 楊上善은 膻은 胸中으로 飲食이 胃로 들어가 氣가 셋으로 나뉘는데 위로 상행하는 것은 胸中에 모이는 것을 氣海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膻中은 肺가 머무는 바로, 모든 氣가 肺에 속하여 이것이 眞氣 또는 宗氣가 되는데 宗氣의 역할이 貫心脈과 行呼吸이라 하였으며, 張志聰은 膻中은 氣의 바다로 膺胸의 안에서 宗氣가 모이는 곳이라 하였다⁹⁹⁾. 『靈樞·脹論』에는 “膻中者 心主之宮域也.”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膻中有心肺之氣 故是藏府之官也”라 하여¹⁰⁰⁾, 膻中이 宗氣가 모이는 곳으로 心肺를 아우르는 胸部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玉英과 膻中은 狹義로는 任脈 二穴로 볼 수 있으나, 廣義로는 宗氣가 있는 곳으로 肺와 心이 거처하며 心包絡을 포함하는 胸廓 전체를 의미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玉英은 玉의 뜻으로 고대에는 뼈를 玉으로 칭하기도 하여 뼈가 화려하게 된 것을 의

미하여 흉곽에 존재하는 좌우 갈비뼈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三陰의 結을 종합하여 부위적으로 보면, 太陰은 腹部, 少陰은 前頸·舌下部分, 厥陰은 胸廓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竇漢卿이 四根三結에 대한 언급에서 三結의 부위로¹⁰¹⁾ 지칭한 頸·胸·腹과 부위상 일치한다.

衛氣는 三陽의 根結로 手足과 五官, 五體와의 밀접한 관계를 구현하였으나, 본래 衛氣는 四肢分肉만이 아니라 全身의 防禦와 外護를 담당하므로, 體幹에서도 衛氣의 布散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根結에서 三陰이 頸·胸·腹으로 結하는 모습은 衛氣의 體幹에서의 布散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衛氣가 全身을 外護하는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體幹에서 三陰의 담당 범위를 파악하여 病所를 찾아 임상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三陰의 關闔樞 病症과 衛氣와의 관계

太陰關의 病症은 ‘倉廩無所輸膈洞, 膈洞’이라 하였는데, 楊上善은 太陰關이 망가지면 水穀이 행하지 못하여 창고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음식물의 정미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기운이 허약해져서 洞泄하여 진다고 하였고¹⁰²⁾, 張介賓은 脾藏에서 運化를 못하여 발생하는데, 洞과 泄을 각기 다른 증상으로 보았으며¹⁰³⁾, 『靈素節注類編』에는 膈洞을 腸胃문제로 脾氣를 조리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¹⁰⁴⁾, 田合祿은 脾는 胃가 水穀의 精微를 布散하는 일을 주관하니 太陰脾가 失常하면 ‘倉廩無所輸’하고 ‘氣不足而生病’한다고 하여¹⁰⁵⁾, 주로 脾藏과 연관 지었으나 실제 病

「張志聰 : 五藏主藏水穀之精者也, 其流溢於下焦之津液從任脈而出於廉泉·玉英 以濡上之空竅。」

95) 『靈樞懸解·脹論·七十一』廉泉 玉英 任脈二穴 適當咽喉之外 是津液之道路也.

96)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上卷. 醫聖堂, p.190, 2001.

97)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下卷. 醫聖堂, p.752, 2001.

98)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素問(全)·上卷. 醫聖堂, p.190, 2001.

99)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p.728-29, 2002.

100)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pp.748-749, 2002.

101)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pp.64-70, 1984.

102)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162, 中華民國 75.

103)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闔病刺』開屬太陰 主於脾也 輸 運行也 膈 隔塞也 洞 如邪氣藏府病形編 曰 洞者食不化 下噎還出也. 脾傷則運行不職 而爲是病

104) 『靈素節注遺編·營衛經絡總論·三陰經開闔樞折』膈洞者膈中乏氣 而腸胃無約束 則傳導失司 而爲洞泄之病 是當助其脾氣爲主也.

105) 田合祿 著. 中醫太極三部六經體系 鍼灸眞原. 山西科

所는 腸胃로 膈이 막혀서 위로 逆上하거나 아래로 洩하여 精微가 흡수되지 않고 나감을 알 수 있는데, 主病所인 腸胃는 부위상 腹部로서 太陰이 結하는 부위이다.

厥陰關의 病症은 ‘氣絶而喜悲’라 하였는데, 楊上善은 厥陰이 筋을 主하여 筋氣가 늘어진다면 기쁘거나 슬픔을 禁할 수 없다고 하였고¹⁰⁶⁾, 張介賓은 厥陰은 肝을 主하여 肝이 傷하면 氣가 안에서 끊어져서 肺氣를 올라타서 悲한다고 하여¹⁰⁷⁾ 藏府의 生剋관계로 풀었고, 『靈素節注類編』에도 肝이 虛하면 悲하다¹⁰⁸⁾ 하여 藏府의 虛實로 보았다. 厥陰의 根結에서 絡하는 膈中이 宗氣가 머무는 곳이며, 心을 外護하는 心包絡이 있는 곳으로 ‘氣絶’에서 氣는 宗氣로 보여지며, ‘喜悲’는 喜樂을 出하는 包絡이 망가져서 喜悲를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氣絶而喜悲’는 宗氣가 끊어지고 기쁘고 슬픔 등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아질 수 있다. 따라서 厥陰關의 病症은 厥陰의 結하는 부위인 胸部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少陰樞의 病症은 ‘脈有所結而不通’이라 하였고, 楊上善은 少陰이 骨을 주하니 骨氣에 損傷이 있으면 少陰脈이 흐르지 않아서 結이 되고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고¹⁰⁹⁾, 張介賓은 腎藏으로 보아 腎이 傷하면 結이 되어 下焦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¹¹⁰⁾, 『靈素節注類編』에는 少陰樞가 折하면 開闔이 모두 원활하지 못하여 三陰經의 脈이 모두 結滯되어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¹¹⁾. 少陰은 五行상 火이므로 五藏에서는 心이 되고 五體에서는 脈이 되므로, 少陰樞의 문제는 脈에

서 病症을 야기할 수 있다. 營衛에서는 脈에 營血이 머물기에 衛氣보다 營氣와의 관련성이 더 높으나, 衛氣는 속성상 脈을 따라 운행하기도 하며, 夜間에는 陰分으로 들어갈 때 足少陰-腎을 통해 들어가므로, 衛氣와 밀접한 根結의 關闔樞에서 脈에 관한 病症이 언급됨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三陰의 關闔樞의 病症을 정리하면, 太陰은 腸胃, 厥陰은 宗筋 혹은 包絡, 少陰은 脈의 結과의 관련성으로 볼 수 있는데, 太陰과 厥陰의 病症은 각각 結하는 부위와 通하는 바가 있고, 少陰은 五體 중에 三陽에서 언급하지 않은 脈과 관련성이 있어, 太陰과 厥陰은 體幹에서 衛氣의 作用과 主治를, 少陰은 衛氣의 五體에서의 作用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三陰의 根結部位

	根	結
足太陰	隱白(井穴)	太倉(腹部)
足少陰	涌泉(井穴)	廉泉(頸部)
足厥陰	大敦(井穴)	玉英(胸部)

표 4. 三陰三陽과 五體 五官과의 關係

三陰三陽	關闔樞	五體	五官
太陽	關	皮肉宛膻而弱(皮肉)	命門(目)
陽明	闔	痿疾(肉)	鉗耳(耳부근)
少陽	樞	骨繇(筋骨)	窗籠(耳中)
太陰	關		
少陰	闔	脈有所結而不通(脈)	
厥陰	樞		

6. 根結을 통해 살펴 본 衛氣의 運行 및 布散

이상을 정리하면, 주간에 눈과 귀에서 출발한 衛氣가 四肢末端으로 布散되며 다시 四肢末端을 根으로 하여 三陽에서는 手足에서 根·溜·注·入의 분야를 가지며 각각의 五體에 보다 관련되어 눈과 귀가 있는 五官으로 나아가 結하고, 三陰에서

學技術出版社, pp.259-260, 2011.

106)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162, 中華民國 75.

107)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闔病刺』闔屬厥陰 主於肝也 肝傷 卽氣絶於裏 而肺氣乘之 則爲悲

108) 『靈素節注遺編·營衛經絡總論·三陰經開闔樞折』蓋肝實則怒 虛則悲

109)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p.162, 中華民國 75.

110) 『類經·經脈類·諸經根結開闔病刺』樞屬少陰 主於腎也. 腎傷 則脈有所結 而下焦有所不通

111) 『靈素節注遺編·營衛經絡總論·三陰經開闔樞折』少陰樞折 則開闔皆不利 故三陰經之脈 有所結滯而不通

는 역시 四肢末端을 根으로 시작하여 頸·胸·腹에서 結하여 해당 부위의 기능에 관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根結의 三陰三陽이 모두 衛氣와 관련되지만, 衛氣의 運行모습과 衛氣의 주작용처인 五體·五官과의 관련성에서 三陽이 三陰보다 衛氣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足經과 手經으로 나누어 보면, 根과 結은 足經만 언급한 것에 대하여, 과거 十一脈에서는 足六經이 十一脈을 대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¹¹²⁾가 있다. 衛氣와의 관련성에서 생각하면, 衛氣의 運行과 布散에서 足經이 더욱 밀접하기 때문에 足經만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Ⅲ. 결 론

根結은 十二經脈 流注와 대비되는 向心性 流注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락이론으로 四肢末端의 井穴인 根과 體幹·頭面部의 結로 이루어져 있으며, 手足三陽의 경우 根·溜·注·入의 穴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단지 유주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根結의 經氣가 標疾活利하여 脈外로 돌며 정해진 循環性이 없이 四肢分肉으로 나아가 外護를 담당하는 衛氣임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榮·衛氣를 비교하여 衛氣의 運行과 作用處가 根結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根結에서 三陽의 結은 晝間 衛氣運行의 시작점인 五官 중의 눈과 귀와 밀접하며, 三陽의 根·溜·注·入으로 手足에서 표면적인 三陽間의 위치 구분이 됨을 살펴보고, 三陽의 關閤樞 病症에서 太陽은 皮肉, 陽明은 肉, 少陽은 筋이나 骨로 五體와의 관련성을 밝혀 衛氣의 運行뿐만 아니라 作用處까지 상통함을 알았다. 衛氣가 三陽을 통해 四肢末端에서 手足을 거쳐 五官이 있는 두면부로 향하면서 다 펼치지 못한 부분인 頸·胸·腹은 三陰의 結이 되어 衛氣가 全身에서 누락되는 부분없이 外護함을 완성하였다. 三陰의 關閤樞 病症은 太陰과 厥

陰은 體幹部에서 衛氣의 주작용을 파악 할 수 있게 해주며, 少陰은 五體 중 三陽에서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은 ‘脈’의 病症을 나타내어, 衛氣의 五體와의 관련성을 강화하였다. 根結에서 衛氣는 五體·五官과의 관련성에서 三陽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으며, 根結이 足經만 기록된 이유는 手經에 비해 衛氣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筋結은 衛氣의 運行 및 作用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으며, 이를 더욱 연구하면 根結의 임상상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參考文獻

1. 傳統醫學研究所 編.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2.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관한 研究. 慶山大學校, 2003.
3. 編譯者 金達鎬. 黃帝內經·素問(全). 醫聖堂, 2001.
4. 田合祿 著. 中醫太極三部六經體系 鍼灸眞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1.
5. 崔元俊. 향심성 노선의 경락체계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1998.
6. 孫光洛. 經脈體系の 形成과 發展에 관한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1998.
7. 조영욱 외. 표본 근결 기가의 정의와 침구치료 적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의학회지, 22(1) 2005.
8. 谷世. 根結標本理論과 應用. 北京中醫藥大學 學報, 17卷 2期, 1994.
9. 編譯者 金達鎬. 黃帝內經·靈樞(全). 醫聖堂, 2002.
10. 姜棟允 趙學俊. 經脈 絡脈의 順行樣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의사학회지, 19(2). 2006.
1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112) 朴映奭. 是動病 所生病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p.48, 2012.

12. 徐自漢 等著. 內經靈素考.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2.
13. 黃龍祥 著. 中國鍼灸學學術史大綱. 法仁文化社, 2007.
14. 楊上善 注, 肅延平 校. 黃帝內經太素. 王家出版社有限公司, 中華民國 75.
1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人民衛生出版社 1983.
16. 馬元台 張隱庵 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聯國風出版社, 1977.
17. 任應秋. 黃帝內經類析.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18. 張介賓. 類經. 書苑堂, 1977.
19.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1984.
20. 吳紹德等. 陸瘦燕鍼灸論著醫案選. 人民衛生出版社, 1984..
21. 朴映奂. 是動病 所生病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2012.
22.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3.
23. 玉到勳 著. 『素問·陰陽離合論』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24.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1996.
25. 丹波元簡 著.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1984.
26. 김선호 역. 선호 영추(상). 대전, 주민출판사, 2003.
27. 김석진. 대산 주역강의(3). 대전, 한길사, 1999.
28. 曹炳章 原輯. 中國醫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29. 章虛谷 著. 靈素節注遺編·醫門棒喝三集. 中醫寶典, 1825.